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기

1장: 문제 제기와 책의 기록 동기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는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통해 늘 이어져 온 문제로,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 이 책의 저자인 반드루넨 또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들이 믿는 기독교와,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반드루넨이 이 책을 쓰게 된 더 큰 동기는, 바로 오늘날 현대의 많은 목소리들이, 이 기독교와 세상의 문화와의 관계를 그릇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루넨은, 이에 대한 가장 바른 대안책이자, 유일한 대안책인 성경적인 대안책을 모색하기를 원하는 데, 저자는 그것을 이 책의 제목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나라의 두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개 요

전체적 개괄>> 저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담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이 책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함으로, 과연 저자가,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나라의 두 국민으로 살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지, 그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장으로는 총 7장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으로는 서론과, 총 3부로 나누어 이 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1부 2장과 3장, 그리고 2부 4장과 5장은 책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3부 6장과 7장은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제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말하면, 가장 먼저 저자는 1장 서론 첫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바로 앞서 말한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즉,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화두인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날 현대의 많은 목소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이 현대의 목소리들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목소리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목소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대의 잘못된 목소리들의 전형을, 바로 변혁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변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로, 저자는 신 칼빈주의와, 새 관점 주의자들, 그리고 이머징 주의자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무엇일까? 이들은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칼빈주의>> 먼저, 변혁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 칼빈주의자들이다.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앨버트 월터스인데, 그가 쓴 책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코넬리우스 플랜팅거로 저서는 <기독교지성인의 책임>이다. 이러한 신 칼빈주의와 연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월터스의 책처럼, 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로만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양식을 인지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타락하였으며, 그래서 만물 곧 우주는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혹은 재창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혹은 재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되돌리시고, 아담이 타락 이전에 멈춘 자리를 우리가 이어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전통적인 견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도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 문화를 통해, 창조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시키시는 장기적인 사명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통해 부패한 형태로나마 그 사명을 계속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구속은 이런 지속적인 사명에서 인간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죄에 물들어 왜곡되어 있는 문화를 정화시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과 온 창조에 유익을 끼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방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랜팅거는 말하기를 “우리는 거룩한 도성이 수 세기에 걸쳐 완벽함이 더해진 에덴동산이라 생각해도 좋다”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창조와 인간 문화가 타락 전에 하나님나라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물의 새로워짐과 구속 역시, 하나님나라의 새로워짐과 구속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문화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플랜팅거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예를 들어 의료를 위해 하는 일이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일이나, 지식을 통해 선한 일에 힘쓰는 모든 일은, 단순히 사람을 위해 애쓰고 투쟁하는 일이 아니라, 내세에까지 보존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이원론적인 사고,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성스러운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세적인 영역으로 삶을 이원화 하는 어떤 구분도 배격한다. 이런 견해는 뿌리 깊은 영지주의적 경향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세상을 벗어나 하늘로 도피해야 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수직적 구원론과 거리를 두며, 이런 수직적 구원론은 성경의 견해가 아닌, 오히려 플라톤의 견해라고 한다.

새 관점주의자들

이어서 이러한 신칼빈주의와 거의 유사한 논지를 펴 나가는 새 관점주의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최근 수십년간 새 관점주의자들은 사도바울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많은 논쟁들을 일으켜 왔는데, 사도바울에 대한, 개신교의 전통적 견해는 인간의 보편적 죄성, 즉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칭의,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통적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관점주의자들의 기독교와 문화에 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러한 새 관점주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톰 라이트인데, 이 라이트의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신칼빈주의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이트는 그가 쓴 ‘마침내 드러낸 하나님나라’ 를 통해, 기독교의 소망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사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견해에 맞서며, 이러한 견해는 오히려 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 라이트는 육체적인 부활과 물리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소망은 이 세상과 영원한 상태 사이의 긴밀한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다시 말해 변혁을 추구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하늘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는 태도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을 초래하는 잘못된 경향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라이트는 세계의 웅장한 주제를 거명하는데, 곧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선함과,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이 세상 안에 존재하게 된 악, 그리고 이 세상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속이다. 바로 신칼빈주의자들이 가졌던, 창조, 타락, 구속의 구도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라이트가 생각하는 구속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창조를 다시 해방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데 있다. 그러므로 라이트가 보는 하나님나라는 미래의 비 물질적인 하늘이 아닌, 새 창조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현재의 땅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기는 하지만, 인간이 함께 협력하여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사회 변혁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과 우주적인 새로워짐에 대한 사전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수단인 동시에, 창조를 구해내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라이트는 교회가 가진 사명은 단순히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라이트의 견해는 칼빈주의가 말하는 변혁주의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머징 교회

이제 세 번째로 이머징 교회에 대해 알아보자. 이머징 교회 또한, 신칼빈주의자나 새 관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형태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엄정한 교리를 싫어하며,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를 추구한다. 이들이 무엇을 긍정적으로 옹호하는지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많큼은 분명한데, 그것은 문화를 구속적으로 변혁하는 일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이머징교회의 유력한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맥클라렌은 영적인 영역과 세상에 속한 영역을 대비시키는 이원론적인 기독교에 반대하며, 오히려 현세적인 기독교를 말한다. 맥클라렌이 규정하는 기독교는 속죄나 죄용서가 아닌, 사회적변혁에 더 깊은 관심을 둔다. 따라서 맥클라렌이 말하는 예수는 죄로부터의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아닌, 오히려 원래 인류가 가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인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며, 또한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나라는 이 세상을 벗어난 하나님나라가 아닌,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회복되고, 실현되는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혁주의자들의 공통된 주장을 정리하여 말하면, 이렇게 정의하여 말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은 물질적인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세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죄는 끔찍하고 왜곡시키는 실재이고,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 처음 세우신 목표를 단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문화적 사명은 고귀하고 유익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죄가 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부활 및 새 하늘과 새 땅은 기독교의 위대한 소망이라는 것이다.

바른 대안/결론>>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적 목소리들에 대한 바른 대안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에 대한 바른 대안으로 성경적인 대안을 말하는데, 이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개신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결같이 주장한 견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그 유일한 대안을 바로 두 나라 교리라고 말하는데, 이 두 나라 교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 변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사명, 곧 문화명령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는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둘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사명이 분명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결국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며, 없어질 수 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과,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회복된 인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적 사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모든 구속을 단번에 이루시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문화적인 사명들을 우수하고 지혜롭게 수행하면서도, 더욱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다.

본론 1부(2장, 3장):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펼쳐 보이기를 원하는 두 나라 교리를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1부 2장과 3장에서, 그리고 2부 4장과 5장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펼쳐 나가 보이는데, 가장 먼저 저자는 2장과 3장에서, 웅대한 성경 이야기의 두 주인공인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의 관계들을 통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는 본질적인 위치이자, 사명이 무엇인지 말함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밝혀나가고 있다. 즉, 첫째 아담이 실패한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모든 율법의 의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다 받아내신,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또 다른 아담들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어떠한 문화명령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론 2부(4장, 5장):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2부인 4장과 5장에서는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통해, 이에 대해

접근을 시도 하는데, 먼저 저자는 구약성경을 통해 이를 추적한다. 바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두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류전체와 맺으신 일반언약인 노아언약과,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특별 은혜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저자는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 증명해 나가는 데, 바로 하나님은 이 두 언약 하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바로 두 언약인 노아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안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한편으로는 불신자와 이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감으로, 노아 언약을 존중하며 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불신세계와 구별되는 예배 공동체로 모임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규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겪은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바벨론 기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두 나라 이야기의 구체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펼쳐나 가는데, 이는 구약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자,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완성 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인데, 그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점철된 나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의 삶이자, 거류민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이 두 나라는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아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인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아주 특별하게 하늘에 속한 자들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는데, 이는 아브라함 안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언약 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사람들과 전혀 구분된, 뚜렷한 회원자격과, 신념, 그리고 예배와, 윤리가 있으며, 완성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결론>> 이제 저자는 3부인, 6장과 7장을 통해, 결론적으로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먼저, 6장에서는 구속의 나라가 현재에 구현 된 형태로서의 교회를 다룬다. 저자가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 하면서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야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목적하는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중심 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마지막 7장에서, 두 나라 교리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교육, 직업, 정치)에서 갖는 실제적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갖는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활동에 대해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참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 저자가 특별히, 이 책에서 문화와 문화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먼저 저자가 사용하는 문화는 온갖 다양한 인간활동과 거기서 비롯된 산물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간활동과 산물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 활동과 산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문화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

본론1: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렇다면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과, 그에 대한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취해야 할 두 나라 국민으로 사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저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 책의 본론의 첫 부분인 1부 2장과 3장을 통해 펼쳐 보이는데, 바로 성경의 가장 웅대한 이야기의 두 주인공인,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의 관계들을 통해,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취해야 할 두 나라 원리는 어떤 것인지를 밝혀 나간다.

즉,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바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펼쳐가시는 구속의 이야기로,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창조와, 더 나아가 새 창조의 역사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첫째 아담이 실행했어야 하는 문화에 대한 과업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공로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아담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자.

2장: 첫째 아담...창조와 타락

먼저, 우리는 첫째 아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즉,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피조된 첫째 아담은, 과연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위치로 부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 받았는지, 그래서 과연 그가 그 모든 부르심과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

세계의 창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를 다룬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분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갖는 존재적 사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의와, 진리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여기서 지식과, 의와, 진리는 선용할 수 있는 윤리적, 이성적 역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존재 자체, 다시 말해 존재명령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 또한 그렇듯이, 수행명령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다시 말해 지식이 있고, 의롭고,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존재명을 지닌 아담이, 그 존재명령을 따라 수행해야 하는 수행명령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첫째 아담은 최고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위 지배자로서의 수행의무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첫째 아담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버금 왕이 되도록 하셔서, 왕 되신 하나님의 일인, 문화명령을 대신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정의에서, 반드시 하나 더 추가해서 인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마치신 후에,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왕으로 안식하시기 위해 좌정하셨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일하셨고,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 안식하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일만 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마친 후에, 새 창조로 들어가 왕위에 앉아 왕으로 안식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흔히 말하는 문화명령은 무한정 지속되는 사명이 아니라, 아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후에, 왕으로 등극이 되어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다시 말해 새 창조의 완성으로 들어갈 한시적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결국,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문화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내세로 들어갈 운명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다. 즉 자기 일을 마치신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과연 인간이 자기 일을 마치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먼저 한가지는 창세기 2장 15-17절에서 말씀하는 에덴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에덴동산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인 성전에서 아담이 과연, 성실한 형상 보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이 왕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에덴동산은 성전이었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제사장적 수행명령을 아담이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맡겨진 왕의 사명과,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은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하나의 사명인 것이다. 즉, 아담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문화명령을 수행할 의무와 함께 성전인 에덴 동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개혁신학은 이렇게 하나님과 첫째 아담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언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언약은 아담의 행위를 따라 결정되는, 행위언약인 것이다. 따라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충실하면, 인간은 영생을 얻을 것이겠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아담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인간 역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타락: 정죄와 부패, 그리고 죽음>> 우리는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왕으로서의 지배력과 제사장으로 에덴을 보존할 보편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시험하심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아담은 두 가지를 다 실패했는데, 먼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주어진 통치명령인 문화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 또한 아담은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2장 15절의 명령도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제사장의 직무 또한 멸시하게 되어, 정결하게 보전되어야 할 에덴을 더럽히게 된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 두 명령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데, 먼저 여자에게 하신 저주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남자에게 하신 저주는 바로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활동에 대한 저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인 죽음에 대한 선포로 아담은 자신에게 예정되었던 원래 운명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아담은 이 세상에서 일한 다음에 장차 올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흠으로 돌아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와 문화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첫째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는 문화생활은 종결되지 않았으나, 이제 더 이상 그는 자신 스스로의 문화적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운명이 된 것이다. 즉, 타락한 인간 문화로는 이제 더 이상 새 창조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첫째 아담은 애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문화명령에서 실패했으며, 이후 모든 시대에 있어지는 문화활동은, 광범위하게 부패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며, 뱀과 함께 정죄를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한 줄기의 희망>> 그러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단 1%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성경의 나머지 99%의 이야기는,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로,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수행하지 못한 일을 완전히 수행하심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승리의 이야기인 것이다.

3장: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구속과 완성

우리는 이전 장에서, 죄로 인한 타락이라는 끔찍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는 소망에 대한 결말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로 끝맺음을 끝맺음을 맺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비해, 이 원시복음은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아담이 왕으로서의 지배력과, 제사장으로 에덴동산을 지키고 보존할 거룩한 사명을 위임받았는데,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창세기 3장 한 가운데로,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 이후 이제 더 이상 아담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대신 수행하심으로 그 둘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아담도 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이 수행해야 하는 어떤 문화적 사명도 필요치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2-19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아담이, 역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요체라고 명쾌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첫째 아담에게 맡겨진 원래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으셨던 것인가? 그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가졌던 그 사명과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또 모든 시험에 통과하심으로 그 사명을 성취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담이 가진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심으로, 자신과 연합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와 문화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시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첫째 아담이 이루었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아담들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변혁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수행하는 문화활동이 첫째 아담에게 맡겨진, 원래의 사명을 회복해서 완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총족성(오직 예수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속죄에 기여하거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는 오로지 예수그리스도의 순종만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간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둘째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명령을 어떻게 이루시고, 또 어떻게 첫째 아담에게 예정된 운명을 달성하셨는지, 저자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펼쳐나간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이 과연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서, 장차 올 세상에 어떻게 참여토록 하시는지 같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밝혀 나간다.

첫째 아담에게 맡겨진 일의 성취와, 첫째 아담에게 예정된 운명을 달성하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먼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으며, 어떻게 첫째 아담에게 예정된 운명을 달성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로마서: 일의 성취>> 로마서 5장 12-19절에서 사도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두 사람 다 온 인류를 대표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는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먼저 로마서는 첫째 아담이 했던 일을 묘사할 때, 한 ‘사람의 범죄’ ‘범죄한 한 사람’ ‘한 범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등으로 묘사 함으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범죄에 이르게 됨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묘사할 때는 첫째 아담의 행위와 정 반대되게 묘사하는데, 바로 ‘한 의로운 행위’ 혹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 으로 묘사한다.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명령앞에 섰지만, 실패하여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정죄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담이 실패한 일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생명의 의로 인도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운명의 달성>> 로마서 5장 12-19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는지를 강조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에게 약속된 원래의 운명을 어떻게 달성하셔서,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 되셨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리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바울은 사명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함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주님은 첫째 아담에게 예정된 운명을 스스로 친히 달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원래 첫째 아담의 운명이었던, 왕으로서의 등극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는 성도의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신령한 몸은 하늘로부터 나신 예수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말하는 것으로,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알맞은 몸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일의 성취와 운명의 달성>>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에게 의도된 것과 똑같은 양식을 따르셨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맞겨진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사 만물을 통치하신다. 따라서, 더 이상의 아담은 필요치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취하거나 이를 어떠한 명령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주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장엄하게 펼쳐나가는데, 먼저 자기 사명을 끝내지 못한 첫째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죄 없이, 자기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마찬가지로 첫째 아담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에덴을 보호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할 사명을 가졌지만 그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벽한 제사장이요,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자기 백성에게 끼치는 유익: 장차 올 세상에 참여하기

이제 저자는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게 되었는지 같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펼쳐나간다. 즉,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담에게 맞겨진 일을 완벽하게 끝내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담에게 예정된 원래의 운명을 달성하심으로, 이제 신자로 하여금 장차 올 세상에 대한 권리와 특권과 책임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 5장까지의 말씀에서 시종일관, 칭의교리에 대해 설명한다.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러한 곤경에 처한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은 한 의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그르친 사명을 다시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신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담이 실패한 모든 사명을,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심으로 완전한 칭의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신교의 칭의 교리는 앞서 말한 신칼빈주의 개념이나, 이머전트 운동이나, 새관점 주의자들의 변혁주의 문화관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신자의 부활에 대해 말한다.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은 앞으로 있게 될 수 많은 추수를 염두해 둔 말이다.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신자의 몸 또한 아담의 몸을 닮아 살지만, 신자는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덕분에 아담의 형상이 아닌, 장차 올 생명에 속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운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신자가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 갈 수 있음을 말한다. 예수님은 아담에게 예정된 운명을 달성하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장차 있게 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실 창시자, 혹은 선구자가 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선구자이신 것이다.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신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비록 이 땅을 잠시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에,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많은 은사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 기업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하시는 보증과, 인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의 요점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이루어야 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장차 올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복을 이미 획득한 상태임으로, 더 이상 자신의 순종에 근거해서 하늘에 속한 권리와 특권을 획득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신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특권과, 권리들은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이고, 신자는 그 은혜의 결과로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구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고 보호하도록 부여받은 땅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거주할 장소를 청결케 하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마귀를 무찌를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과 장차 올 세상의 현시>> 예수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첫째 아담에게 맡겨진 원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첫째 아담에게 약속된 원래의 운명을 달성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장차 올 모든 복과 영광에 참여 함을 확정 받은 자들인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그 복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아직 성도는 최종 목적지에 다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날이 바로 모든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는 ‘주의 날’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는 철저히 다 종결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3장 10절)” 즉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모든 자연 질서는 다 불타고 녹아서 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된다. 그것은 현재의 자연질서가 철저히 붕괴되도록 예정된 운명이라고 한다면, 현재 인간 문화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말인가? 성경은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문화사역을 의미있고 훌륭한 것으로 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화 사역이 영속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인간의 문화활동과 산물이 철저히 종결될 것임을 말씀한다. 사도바울도,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주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적 작품들 또한 철저히 종결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는데, 거짓과 불의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사도는 온갖 문화활동으로 넘치는 세상이라고 묘사한다는 것이다. 바벨론은 왕들과 상인들로 넘치며,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가족 등 온갖 인류의 모든 삶이 바벨론에서 넘쳐난다. 하지만, 계시록 18장은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묘사를 한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바벨론의 모든 문화활동에 관여하고 참여할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과 모든 소유들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듯이, 신자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자신이 이 땅에서 기여했던 모든 문화활동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새하늘과 새땅으로 영접받게 된다.

결 론

1부에서는 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마지막 아담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수행하지 못한 모든 사명들을 완수하셨고, 애초 아담에게 예정된 장차 올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운명을 달성하셨으므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아니 심지어 지금도 누리게 되는 모든 복과 기업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공하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구원의 완성과 이 세상의 종결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며, 자신이 하는 문화적인 노력의 산물이 새 창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문화 활동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 덧없는 세상, 장차 망할 장망성인 이 세상에서 인간문화의 위치는 과연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한다.